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서 울 교 회
 장 로 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 종 윤
 Lee, Jong Yun, Ph. D., D.D., D. D.

설교목사
 Preaching Pastor

박 노 철
 Park, No Cheol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다윗의 회개와 회복”

(Repentance and Restoration of David)

■ 사무엘하 12 : 1-7, 15-23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보석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결작품인 우리들의 인생이 더럽혀지고, 방치되고,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장군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그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충성스러운 장군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윗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시며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욱이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윗과 같은 죄인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회개하는 자가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1.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죄인이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었으나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를 기뻐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른 것도 아니고 왜 회개하는 자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축복하실까요? 다윗은 용서받지 못할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용서하신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 진정한 회개를 했기 때문입니다(삼하12:13a). 친구 나단이 와서 자신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다윗의 회개가 얼마나 통렬했는지 시편 32편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니이다”(시36:6) 얼마나 통렬하게 진정으로 회개를 했는지 다윗의 회개의 눈물이 베개와 이불을 적시고 침상을 띄울 정도였습니다. 바로 이게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죄를 지은 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통렬하게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2.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에게도 나단과 같은 친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에 빠진 다윗을 죽음의 골짜기에서 건져낸 사람은 다른 아닌 다윗의 오래된 친구 나단 선지자였습니다. 나단이 비유를 들어 다윗의 죄를 단죄하기 시작합니다. 나단 선지자의 지적으로 인해 다윗은 마치 마취된 상태에서 깨어나듯 그 무더진 양심이 깨어났습니다. 그는 죄를 자백하고, 곧 바로 통렬한 회개를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나단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한 마디에 그는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쉽지 않은 일을 했습니다. 첫째는 그렇게 다윗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다윗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나단과 같은 친구가 있습니까? 우리 서울교회가 꿈꾸는 다락방 모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헤어지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다윗과 나단의 그런 친구의 관계를 맺고 영위하기 위해 그렇게 다락방 사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친구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락방 모임을 통해 내가 먼저 그런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서울교회 다락방 사역을 통해서 진정한 친구를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길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 후회스러운 과거에 매이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며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록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을 받은 후 통렬한 회개와 함께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지만 다윗은 그에게 필요한 징계를 받게 됩니다. 다윗과 밋새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가 앓기 시작해 7일 만에 죽게 됩니다. 아이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던 다윗이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다윗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자기의 잘못된 일들을 회개하고, 무엇이 고쳐나기야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생각하고, 너무도 아프고 고통스러웠지만 더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서 분명히 그 후회와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은 다윗에게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여디디야”라고 하는 이름 하나를 더 하셨습니다. 다윗의 회개의 열매로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맺는 말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아서 위대한 하나님이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어려운 죄를 범했지만, 진정한 회개를 했기에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다윗을 본받아 늘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다 받고 누리시길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안주 박노철 목사 설교요약)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 (매일)	본당 II층
주 일 예 배	I 부	가 족 예 배	오전 9시 - 9시 50분	본 당 II,III,IV층
		분 반 공 부	오전 10시 - 10시 30분	
	II부	일 반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 12시 30분	
	III부	(경배와찬양) 청 년 예 배	오후 1시 30분	
			오후 2시 - 3시 10분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웨스트민스터 홀
	찬 양 예 배		오후 5시	본 당
어린이 찬양예배		오후 5시	101호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 당
	II 부 예 배		오후 7시	II,III,IV층
	어린이 수요일예배		오후 5시	603호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20분	본 당 II층

교회학교 안내

부 서	분반공부시간		장 소	부 서	분반공부시간		장 소
영아부(0세-12개월)	I 부	오전 9시	영아부 403호	장 년 부	I 부 (30대)	오전10시/오후3시30분	401호/702호
	II 부	오전11시20분	유아부 706호		II 부 (40대)	오전10시	301호
유아부(13개월-4세)	III 부	오후 2시	유치부 702호		III 부 (50대)	오전10시	401호
	IV 부 (60대)	오전10시	301호				
유치부(5세-7세)	V 부(70대이상)	오전10시	603호				
유년부	오전 10시	701호	사 랑 부		오전10시30분	102호	
초 등 부	오전 10시	101호	예바다부	I 부	오전11시20분	본당	
중 등 부	오전 10시	501호		II 부	오후2시	603호	
고 등 부	오전 10시	601호	English Bible Class		오후12시30분	101호	
대 학 부	오후 3시20분	701호	새 가 족 부	I 부	오전10시	602호	
청년 1,2부	오후 3시20분	603, 601호		II 부	오후12시40분		
대학부 토요일집회	오후 4시	501호		III 부	오후3시20분		
청년1,2부 토요일집회	오후 5시	603, 601호		학습 준비반	오전10시, 오후12시40분	602호	
신혼가정부	오후3시20분	802호		세례 준비반	오전10시, 오후12시40분	609호	
디아스포라부	오후 1시	903호	소요리문답 I · II 부		오전10시, 12시40분	801호601호	
			신앙강좌 I · II 부		오후 12시40분	904·701호	

우리의 비전 (vision)

-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 QR코드



부목사 한상은 서명철 정수길 장석남 황광 박종민 유문진 박광일 박진아 전도사 지해영
 영어목회담당목사 Steven Martinovich 교육목사 임규현 김안성 이종진 교육전도사 김은숙 협동목사 김영한 김재진 김은수 김철홍
 선교사 강아름·주하나, 이사라, 권요셉·조애스터, 김모세·이한나(동아시아),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혜정,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스프로토바로이, 조남혜, 박진영·김미성(방글라데시), 이재울·박병진, 전호진(캄보디아), 조병연·김희정, 우상식·김정옥(인도), 정성진·홍성일
 (말라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이종관·홍미영(말레이시아), 손신일·민매라(체코),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김민서·현혜옥(아르헨티나), 홍남기·김민규(우크라이나), 하정범·현미순(일본), 김평강·최사라(동남아시아),
 박봉규, 김대식, 윤왕모, 추수희, 노신애, 이금순, 김명일, 김탁수(군선교), 김종열·백순미(터키노동자), 이선희(병원선교)
 Thaung Neigh Mang·Cin Swan Mung·Ko Tin·Kha Ma·May Kya(미얀마)

English Worship Service

Presider : Rev. Steven Martinolich

11:20 a.m.
Westminster Hall
Please stand

Prelude	Organist
Call to worship Psalm 119:160-162	Presider
Invocation	Presider
* Hymn 2(6)	Congregation
* Apostles' Creed	Congregation
* Responsive Reading No.15	Congregation
* Doxology 1(1)	Congregation
Prayer	Elder Hak In Choi
Hymn 342(395)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Joshua 1:1-9	Presider
Offering	Congregation
* Offering Hymn 634(70)	Congregation
* Offering Prayer	Preacher
Anthem There is power in the blood	Jerusalem Choir
Welcome to Newcomers	Congregation
Member' s Fellowship	Congregation
Sermon Victory, Land, and Presence in Every Circumstance ...	Rev. Steven Martinolich
* Hymn 449(377)	Congregation
* Benediction	Preacher
* Singing of the Lord's Prayer	Congregation

Victory, Land, and Presence in Every Circumstance

Joshua 1:1-9

Summary of the sermon

What was offered to Joshua and the Israelites is offered to us, yet much more. Their promised victory, land, and presence were limited to the area of land given by God.

But for us our limit is extended to heaven and earth through Jesus Christ which is much more than we can ever imagine. This victory, land, and presence begin when we receive our faith, acknowledged into the kingdom of heaven here on earth.

First we are to be strong and courageous which means in practice, finding God's Sovereignty in every circumstance. We are to stand in His strength, His power, His truth and promise, over ruling what factual problems and circumstances are in front of us. What are you to believe? It should always be God.

Second, we are to obey His law which means submitting to His law. Yes the law of Moses is dead, yes we live by grace, but yes we have the fulfillment of the law by Jesus Christ. He clearly tells us we are to obey all that He has commanded. In practice this means Submitting to God's Sovereignty in every circumstance. If the circumstance is joyful we are in joy, if the circumstance is evil we are suffering, and yet we are in joy because we stay in His sovereign presence.

Third, we are to meditate on the law in every circumstance, and for us Christians to keep peace and love in our hearts in every circumstance. With the help of Holy Spirit we live in the fulfillment of the law, love over hate, health over sickness, peace over war, etc.

Although God's promises are ever before us, and are being constantly fulfilled by Him alone, our eyes can be opened to what He is doing to our hearts and to the world. Only in full submission can we live out this experience with Him.

Announcement

- Welcome to our worship! After worship, we invite everyone to join us for fellowship in Rm. 104.
- Bible study is after fellowship so please join so we can together dig deeper into the mighty word of God.
- We are asking for volunteers to serve as ushers, choir members, teachers, website, pamphlet making, and other church events.
- Our Wednesday Night Bible Study is from 8:30-10:00 in Room 603. We are studying the Book of James.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인도, 설교: 박노철 목사

	시 간 Time	인 도 Presider	기 도 Prayer
I	오전 9시	박종민 목사	박종민 목사
II	오전 11시 20분	박광일 목사	홍성주 장로
III	오후 2시	박진아 목사	이복규 장로
인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의 부르름 Call to Worship ... 시 128:3-4...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 2(6) 다 합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합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 1,3부(삼계경) ... 다 합 께 2부55(사편127편)			
* 송 영 Doxology 1(1) 다 합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 43(57) 다 합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 삼하13:23-29 ...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합 께			
헌 금 Offering 다 합 께			
* 봉헌송 Offering Hymn 634(70) 다 합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합 께			
설 교 Sermon ... "깨어진 가정을 위한 치유" ... 박노철 목사 (Healing for a Broken Family)			
* 찬 송 Hymn 559(305) 다 합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합 께			

목 도	다 합 께
성 시	인 도 자
찬 송	다 합 께
기 도	최원석 집사
찬 송	다 합 께
성 경	설 교 자
사명자대회 발대식	말 은 이
찬 양	찬 양 대
설 교	설 교 자
* 찬 송	다 합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합 께

수 요 예 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인도·설교: 박노철 목사

기 도	I부: 김경희7 권사, II부: 주경자 권사
성 경	마 5:27-32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찍어 버려야 할 것"..... 설 교 자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30분, 본당 피아니스트: 한현숙 · 홍해란 · 김영언

설 교 박노철, 유문건 목사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20분

본당 2층

설 교 박노철 목사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예 배	찬양대	연 주 곡 명	작(편)곡자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I부	가브리엘	온 땅 주님의 것일세	R. R. Forman	유태왕	차주연	조현정	윤주일
II부	할렐루야	주 내 영혼을 사랑하심	Joseph P. Holbrook	고성진	김현정11	김양언	박광서
III부	임마누엘	알렐루야	W. A. Mozart	류충기	강민정1	양경실	윤중현1
찬양예배	베들레헴	내 증인이 되리라	최덕신	김낙원	오신옥	박수강	
영어예배	예루살렘	There is power in the blood	Lewis	심상희	최수황	이승민1	
수요I부	호산나	내 영혼에 파도가 일 때에	이선우	서희숙	김윤지2	홍해란	
수요II부	시 온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현철	백경화	김진형	서유진	

(현금송)

I부	초 등 부	감사해요	미상	양혜선		홍해란	
II부	그레이트랜드	주 하나님 자으신 모든 세계	Joel Rane	송재월			
III부	아멘관현악단	Greater is he that is in me	Lanny Wolfe	임범창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최규성	15-2	바울	본인	김경래	14-1	안드레	본인	고영은	14-7	대학부	임명숙/한혜주
유영수	16-23	베드로	박길희/황선옥/임숙현	김진성	1-31	루디아	서현정	유준혁	16-23	대학부	박길희/황선옥/임숙현
황재은	14-6	바바	임명숙/한혜주	김광남	1-31	신혼가정부	본인	고영우	14-7	고등부	임명숙/한혜주
박광애	15-2	바바	본인	박호영	14-4	청년2부	송인수	유성력	16-23	고등부	박길희/황선옥/임숙현
전은성	16-23	루디아	박길희/황선옥/임숙현	박윤경	14-16	청년2부	송인수	최현제	15-2	중등부	본인
김홍식	1-31	안드레	서현정/김성자	이영민	1-31	신혼가정부	본인	김호준	교육1국	초등부	서현정
박귀선	14-9	루디아	본인	최지현	15-2	대학부	본인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앞면에서 계속

7. 기도실 이용안내 / 기도과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교회는 교회당 3층에 기도실을 설치하여 성도 여러분이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길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장소: 302-306호 · 이용시간: 오전 9시 - 오후 10시)
※ 단, 기도하는 것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8.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병무, 교육,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302-308호) ※ 전화 예약 010-5779-1329

9. 의료 상담 / 정철웅(일반외과)
주일 오후 1시 902호에서 의료 상담 및 진료를 합니다. ※ 전화 예약 : 011-9759-2299

☑ 결 혼

1. 신랑 박상규 군(1교구 박혁 집사 임명숙 집사의 장남)과 정지아 양(정상훈 집사 김명희 집사의 차녀) /
15일(토) 오후1시30분 서울교회

☑ 장례

1. 故 이정옥 권사(4교구) / 2일 별세, 3일(월) 천국환송예배
2. 故 최경홍(3교구 최상균 집사 부친, 박혜선 집사 시부) / 4일(화) 별세, 6일(목) 발인



교회의 힘

교회의 힘은 가건적인 건물이나 물량적인 숫자 또는 세상사람들이 생각하는 지식, 무력, 경험, 권력과 같은 것으로 쥌 수는 없다. 한국교회가 이 시대에서 하나의 힘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자랑스럽기보다는 오히려 비참한 생각마저 드는 이유가 무엇일까?

교회에 힘이 있다면 그것은 신령한 힘이고, 거룩한 능력이어야 할 것이다. 그와 같은 힘은 성령의 거룩한 역사로 이루어지는 힘이고, 기도의 힘이며, 진리되신 복음의 힘이어야 한다. 성령의 권능으로 자신을 새롭게 하고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며, 복음의 능력으로 어둠을 밝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오늘의 한국교회가 이 시대에 진정한 힘을 나타낼 수 있다면 주님의 몸으로서의 사명을 바르고 깨끗하게 수행할 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한국교회에 거룩한 힘을 주실 것을, 그리고 그 힘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종윤 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

청 결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힘쓰시다.
유 지	교회에서 음식을 섭취는 만나 홀(801호)에서만 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절 약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오시다.

주 일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성 수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